

“5·18민주화운동 교육...수업에 적용하고파”

●광주시교육청 '성과공유회'

주먹밥 쪽지·팔찌 만들기, 5·18 보물찾기 등 우수사례 발표
이정선 교육감 “5·18교육 발전·학교 현장 적용성 제고 기대”

“5·18민주화운동 교육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돼 향후 수업에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9일 광주교육시민협력진흥원 대강당에서 5·18민주화운동 교육 담당 초·중·고 교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5·18민주화운동 교육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이뤄진 이번 행사는 그동안 진행됐던 5·18민주화운동 교육 운영을 돌아보고, 학교 현장에서 진행된 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유회는 현장 교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도 5·18민주화운동 교육 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데도 목적을 뒀다.

현장에서는 어룡초와 월곡중에서 진행된 주

먹밥 쪽지·팔찌·책갈피 만들기와 협동 그림 그리기 등 학생 참여형 체험 활동과 학생들이 준비해 눈길을 끌었던 5·18 보물찾기, 5·18 밴드공연, 5·18 전시마당, 5·18캠페인, 학부모 자치회가 추진한 5·18 이팝나무 포토존, 5·18 독서퀴즈, 5·18 도서 읽어주기 등이 안내됐다.

또 청소년 5·18 홍보단 ‘푸른새’ 단원 김석영(광주동신고) 학생이 직접 재즈풍으로 편곡한 ‘임을 위한 행진곡’, 오월의 노래 등 피아노 연주와 참여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증정도 이뤄졌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이번 성과 공유회가 교원들의 5·18민주화운동 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여 5·18 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이끌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9일 광주교육시민협력진흥원 대강당에서 ‘5·18민주화운동 교육 성과 공유회’를 열어 한 발제자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고 교육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전국 및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5·18민주화운동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 매년 전국 희망 교원에게 5·18 교육자료(꾸러미)를 배부하고,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5·18 플래시몹을 선보이는 등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김다이지

박주상 목포해양대 교수 한국민간경비학회 회장 선출



박주상(사진)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 교수가 한국민간경비학회 제17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10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 따르면 한국민간경비학회는 지난 2000년 설립된 전국 규모의 학술단체로, 국가와 민간의 협력 차안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민간 경비, 경찰학, 범죄학 등 150여개 대학의 교수 및 연구자 5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경찰청 등 국가기관과 한국경비협회 등 유관단체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박주상 교수는 “급변하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치안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학술세미나 등을 마련하고, 동시에 회원 간 소통 및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해 학회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신현진 GIST 교수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수상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10일 “신현진(사진) 반도체공학과 교수가 ‘2024 대한민국 여성과학기술인대회’에서 제2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등 여성과학기술인 기관들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함께 만드는 미래, 여성과학기술인의 글로벌 혁신 리더십’을 주제로 최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여성과학기술인상은 학술, 산업, 진흥 3개 부문별로 수여된다. 학술 부문은 이학·의약학, 공학 분야 등 연구개발 내용의 우수성, 연구개발 성과의 우수성, 연구개발 성과의 파급효과 등 최근 5년간의 학술적 연구개발 활동을 평가한다.

학술 부문 수상자인 신 교수는 ‘실용화를 위한 2차원 소재 대면적 성장 및 계면 제어 연구’로 반도체 실리콘 소재를 대체하기 위한 2차원 소재의 성장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반도체를 대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현진 교수는 “새로운 2차원 소재의 성장 및 특성, 응용 발굴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기여하고 기초 연구가 실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학 기술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향후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이 양성될 수 있도록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다이지



동강대, RISE 대비 ‘제48회 건축디자인전’ 개최

동강대학교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대비해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10일 동강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교내 이공관 309호 특별전시실에서 ‘제48회 건축디자인전&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8회째를 맞는 동강대 건축디자인전 주제는 ‘RISE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동강’이다.

지난 5·6일 17개(1학년 10개·2학년 7개) 작품

이 전시됐고 조성범(건축과·2년)씨가 총장상을 수상했다.

조씨는 교내 주차장 부지에 외부 접근성이 뛰어나고 휴식 및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까지 갖춘 주차타워를 설계해 큰 호응을 얻었다.

건축전을 지도한 이상의 교수는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RISE’ 시행을 앞두고 학교 시설을 지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융합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 고민했고 올해 건축전 콘셉트로 작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다이지



전남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성료

전남도는 10일 여수베네치아호텔에서 도, 광역·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성과대회에서는 그동안 도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유공자 표창과 함께 시·군 우수사례 발표, 성과 공유 등이 이뤄졌다.

우수 기관에 나누시·진도군·보성군 보건소가 선정됐고 공무원 3명, 민간인 3명이 전남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시·군 우수 사례인 강진군 ‘군민의 마음 쉼터 보은산 힐링센터 운영’, 영암군 ‘지피의 친

구들’, 완도군 ‘자연과 함께하는 오감 활용 프로그램’이 발표됐다.

전남도는 도민 일상 속 마음돌봄을 위해 정신건강관리 앱 ‘터치마인드’, 취약계층 이동상담실, 마음안심버스(3대) 등을 운영하고 생명사랑마를 지정(2천개소), 생명사랑지킴이 양성(2만8천명) 등 매년 정신건강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예방부터 회복까지 일상 속 마음돌봄 정착을 위해 도민 체감형 정신건강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록수장학회, 광주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전달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재)록수장학회 장학금 기탁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김봉길 록수장학회 이사장과 임원진, 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과 소방서장, 장학금 수혜 학생 등이 참석했다.

올해 선발된 장학생은 대학생 29명과 소방공무원 유자녀 5명 등 34명으로 총 6천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록수장학회는 전국 유일의 소방관 자녀 지원 장학회다. 푸른 물처럼 ‘영원불멸’을 뜻하는 이름을 내세워 1976년부터 매년 광주시 소방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봉길 록수장학회 이사장은 “장학회가 도와야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분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장학생들이 무한한 꿈을 실현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동양장학재단, 남구 취약계층 학생에 장학금

광주 남구는 “최근 라인그룹 동양장학재단이 장학금 7천만원을 기부해 장학 증서 수여식이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10일 밝혔다.

동양장학재단은 2021년 남구에 장학금 7천만원을 후원했으며 지난해에는 8천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수여식에는 공병탁 라인그룹 총괄사장과 김병내 구청장, 장학금 수혜 학생과 학부모 등 80여명이 함께했다.

해당 장학금은 관내 취약계층 가정의 고교생 및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7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이들은 학교장과 구청 행복 멘토링단, 여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로 성적 상위 20% 이내와 우수·모범 학생들이다.



공병탁 라인그룹 총괄사장은 “라인그룹과 동양장학재단은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도록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희망의 디딤돌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강성남 담양문화원장 ‘전남문학상’ 수상

강성남 담양문화원장이 최근 담양문화원 인문학관에서 열린 제47회 전남문학상 및 제37회 전남백일장 시상식에서 아동분야 전남문학상을 수상했다.

10일 담양문화원에 따르면 전남문학상은 전남도 후원과 전남도문인협회 주관으로 전남문학 발전 기여도와 문학작품의 우수성을 심의 평가해 매년 수상한다.

강 원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험한 길, 굽이치는 길을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길에서 멈추면 안 된다”며 “그 길목이 걷는 자의 용기를 시험하며



그 길을 넘어야만 더 편안하고 아름다운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나주 봉황면에 이불·쌀 등 온정의 손길 잇따라

나주시 봉황면은 10일 “겨울을 맞아 최근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 물품 기탁 등 온정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최길주 나주시협 이사는 봉황면에 이불 30채를 기부하며 “추운 겨울이 되니 고향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떠올라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 앞으로도 고향을 밝히는 등불이 되겠다”고 말했다.

봉황면의 한 주민은 수확기 벼밭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백미(20kg) 50포를 기탁하며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주민은 지난 2월에도 위기 가정을 위해 같은 양의 쌀을 기부하는 등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이창동 소재 경진상회의 정경진 대표는 고향 봉황면에 이불 20채를 기탁했다. 정 대표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과 경로당에 따뜻함을 전하고 싶어 나눔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정종환 기자

진도경찰, 도서지역 운전면허 출장시험 ‘호응’

진도경찰서 군내파출소는 “최근 전남운전면허시험장, 진도군가족센터와 협력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돕고 무면허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출장시험과시험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진도군가족센터 3층 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시험에서는 전남운전면허시험장의 협조로 교동안전교육과 필기시험이 원스톱(ONE-STOP)으로 이뤄졌다.

시험에는 16명이 접수해 8명이 합격했다.

군내파출소는 지난 2011년부터 진도와 조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출장운전면허 시험을 추진해 현재까지 약 200명의 주민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임진영 진도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전남면허시험장과 협력해 진도·조도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주민들을 위해 출장시험과시험과 교동안전교육 등을 ONE-STOP으로 추진하며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원 기자